

## 1990년 12월 18일 제120회 참의원 외무위원회

○ 일시: 1990년 12월 18일(화) 오후 2시 개회

○ 발언자:

-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의원(정치가, 일본사회당·호헌공동 소속 참의원 의원, 사회당 여성·시민국장, 사회민주당 부당수)
- 도카리 도시카즈(戸刈利和) 설명원(노동성 직업안정국 서무과장)
-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郎) 국무대신(자유민주당, 중·참의원 의원, 외무대신, 총리부총무장관, 오키나와개발청장관 등)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013968X00119901218&spkNum=48&current=18>

○ 해제(개요 및 특징)

조선인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에 국가와 군이 관여했느냐는 시미즈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동성 간부와 나카야마 대신 모두 자료 부족 등을 핑계 대며 부정으로 일관하고, 이것이 정부 견해임을 확인함.

○ 주요 내용 번역

- ▷ **시미즈** “다음으로 일한(日韓)·일조(日朝) 모두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관한 문제가 매우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일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도의상의 문제, 그리고 중요한 정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그다지 시간이 없으므로 내용을 깊이 파고드는 질문은 동료 의원이나 저도 다음 기회로 양보하고자 합니다. 당면한 두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실은 6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동료 의원인 모토오카 의원이 조선인 강제연행 조사와 관련하여 **종군위안부** 문제를 바로잡는 데 대해서, 노동성의 시미즈(清水) 직업안정국장이 정부 답변을 했습니다. **종군위안부**는 군, 국가와 관계없이 민간 업자가 제멋대로 끌고 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습지만, 이 사안에 대해 대신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 정부의 인식은 변함이 없습니까? 이것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 ▷ **도카리 설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후 노동성에서도 조사해봤습지만, 실은 노동성 관계에서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후생성(厚生省) 근로국(勤勞局)인지 국민근로동원서(国民勤労働員署)인지 그런 곳에서 근무하셨던 분으로부터 사정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당시 그런 관청 관계에서는 조선인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동성으로서는 조선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경위 등은 전혀 상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생성 관계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

- ▷ **시미즈** “그런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국가와 군은 관계하지 않았다, 관계했다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관계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므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두고 싶은 것입니다.”
- ▷ **도카리 설명원** “적어도 저희가 조사한 범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생성 관계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이상은 조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는 했지만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 **시미즈** “그럼 전에 하신 답변이 그대로 정부 견해가 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대신, 괜찮나요? 그렇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 ▷ **나카야마 국무대신** “정부로서는 노동성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 ▷ **시미즈** “그럼 **종군위안부**라는, 강제연행 가운데 **여자정신대**로 강제연행된 조선 여성들 문제는 국가도 군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네요.”